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 방안

최영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국어과교육을 위한 선결 조건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국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일이다(최현섭 외 1999, 461 참조). 국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의 국어사용 방법은 국어교육에서 가르칠 내용을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국어과 교육을 위해 교재를 만들고, 실제 교실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국어과 교육의 목표이다. 국어과 교육 시간에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일은 이후에 이어지는 국어 교육 각 단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일단 목표를 결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결정한다. 교육 내용은 유능한 국어 사용자들의 사고 과정을 분석한 결과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 결과는 곧바로 학습자가 학습할 사고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실 상황에서 교수·학습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 과정에서는 학습해야 할 사고 과정, 즉 학습 내용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교수 과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어과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교재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교육의 기본 구조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없지 않지만, 어떤 개념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육에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교육은 ‘아는 것’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원리와 내면화, 지식과 행동, 앎과 활동, 외적으로 주어진 것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한 행동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것이면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교육을 완성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닌다.

3. 교재의 구성 요소

교재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몇 가지 기본 요소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들 요소가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최현섭 외(1999:112~113)에서 교재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범주화 한 것은 교재 구성의 순서 또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범주에 포함된 구성 요소라는 것은 서로 대등하지도 않고 유기적인 관계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① 목표 : 학습자가 학습할,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 ② 내용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전략
- ③ 언어 자료 :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 제재
- ④ 활동 :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한 행동

교재에는 위의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실제 국어를 가르칠 때 교재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4. 새로운 교재 구성의 방향

가. 교재 구성을 위한 두 축

현재의 교재 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은 이미 학습한 지식을 실제 국어사용 과정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국어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하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결국 국어과 교재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교재 구성을 위한 기본 구조는 상위언어적 학습의 개념도에 기반을 둔다. 상위언어적 학습의 개념도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

- 첫째, 상위언어적 지식 학습
- 둘째, 모범적 국어사용 확인
- 셋째, 단계적 과정 수행
- 넷째, 적용 학습

이 네 가지를 그대로 교재 구성에 반영하면 ‘아는 것’으로부터 ‘하는 것’으로 학습 순서를 잡고 체계적인 교재의 틀을 완성하게 된다.

‘아는 것’		‘하는 것’	
전략 학습	전략 확인	전략 연습	전략 적용
①상위언어적 지식학습			
	② 모범적 언어 사용 확인		
		③ 단계적 연습	
			④ 적용 연습

[그림 1] 원리 학습과 적용 학습의 학습 초점

나. 구성 요소의 조합

교재를 [그림 1]과 같이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분석할 경우 교재 제작은 물론 교재 활용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교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모듈(modul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된다. 모듈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대개 어떤 기능을 하는 구성 부분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국어사용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추출한 것을 전략, 전략의 모범적인 예, 전략의 단계적 연습, 전략 적용으로 배열하고 나면 이것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진다. 현재와 같이 단선적으로 배치된 국어과 교재의 틀은 교수·학습 역시 단선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재의 구성 요소를 모듈로 활용하게 되면, 국어과 교육을 회귀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즉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단위를 분석하여 추출한 요소들을 교재 속에 적절히 분산 배열하고, 다시 반복 처리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듈화 전략을 사용하여 교재를 구성하게 되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단선적으로 나열된 의사소통 맥락별 국어과 교육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부담을 갖고 있다. 의사소통 맥락이라는 것은 무한정 확장될 수 있으므로 국어사용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갖기도 한다. 그러나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모듈을 중심으로 학습량은 감소하고, 모듈의 사용 횟수가 반복됨으로써 사용 빈도가 높아져 국어사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실제 의사소통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맥락 중심 요소와 국어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국어 기본 요소가 맥락에서 활용되는 양상까지 학습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맥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모듈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